

“이재용 상무 재산형성 관련문건 있다”

김용철 삼성구조본 前법무팀장 폭로... 공개는 미뤄 “현직 최고위급 검사중 ‘삼성떡값’ 받은 사람 여러명”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는 5일 삼성 구조본에서 검사 수습여명을 관리했다며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조직 중 작은 편이었으며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나 국세청은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에서 불법 로비는 모든 임원의 기본 책무인데 나는 법조계를 담당했다”며 “구조본에서 검사 수습 여명을 관리했으며 나머지 분야는 60여개 계열사가 나눠 맡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보통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로비) 지시를 받았는데 현직 최고위급 검사 가운데도 삼성 돈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로비를 받았다는 검사 명단에 대해선 “삼성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의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는다. 진실 규명이 지지부진하고 삼성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이 제 본분을 다 하지 않을 경우 공개

하겠다”라며 공개를 미뤘다.

그는 로비 자금의 출처가 각 계열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이었으며 삼성 적자인 회사도 수습여원의 비자금을 만든 뒤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로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과 관련해 “모든 증인과 진술을 조작해 돈과 힘으로 법원을 모욕했는데 법무팀장인 나도 중심에 서서 그 일에 참여한 공범이었다”고 털어놴다.

김 변호사는 “차명 비자금을 가진 임원 명단에 일부 갖고 있는데 이는 금융실명제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며 “하지만 삼성 안에서는 차명계좌를 가진 것 자체가 승진의 징표이자 일종의 훈장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도 재산을 불법 형성했다”고 주장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삼성의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있지만 기자회견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려 분실이 우려된다”며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을 위해 검찰, 국가정보원, 청와대, 언론이 실시간 정보보고를 했으며 심지어 삼성에 가장 비판적인 시민단체마저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이 곧바로 삼성에 보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은 모두



5일 오후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열린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과 삼성, 언론,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의 철저한 반성을 위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호소와 양심성찰기도' 기자회견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을 위해 살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반성한다”고 사죄한 뒤 “삼성이 건강하게 새로 태어나길 바라며 재벌이 사법체계를 국가, 사회를 더 이상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시설농가, 기름값 탓만 할건가



송기동
사회2부 차장

“1ha(3천 평) 규모의 파프리카 유리온실의 경우 겨울철 영하 날씨에는 하루에만 기름(경유) 10드럼(2천ℓ)이 들어갑니다. 면세유라 해도 130만원어치입니다”

30여년간 시설원예에 종사해 온 이모(53·화순군 도곡면)씨는 “치솟는 기름값에 올 겨울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제유가가 최근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며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파프리카, 시설 오이, 장미 등 시설하우스 재배 작목들은 다른 작목에 비해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리터(ℓ)당 420~450원 하던 농업용 면세유(경유) 가격은 지난해 510~530원까지 오르더니 최근에는 725원까지 급등하며 농가의 커다란 경영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그나마 면세유 할당량이 농가 필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에너지절 절감할 기술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 유리온실 재배농가들은 새로 개발된 에너지 절감 기술과 장치 등 난방시설 교체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 임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지원 또한 충분치 않아 영세 시설농가는 난방비 때문에 아예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

대책은 없는 걸까. 현재로서는 그렇다. 전남 시설농가들이 대부분 기름 위주의 난방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내 시설원에 면적 4천597ha중에서 난방이 필요한 가온(加溫) 시설원에는 1천769ha. 이 중에서 97.2%(1천719ha)가 유류(油類)를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기름 위주’의 난방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시설원에는 경쟁력을 잃는다고 단언한다. 저렴한 난방기 개발과 고효율 보온소재 개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 등이 뒤따라야 한다.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의 설치비용 지원은 필수적이다.

경남·북 지역 시설재배 농가들은 수년전부터 발 빠르게 애호박, 참외, 가지, 멜론 등 재배온도가 높지 않아도 되는 작목들 위주로 전환하면서 보온덮개를 이용한 터널재배 방식을 도입해 유가 부담을 덜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화산성 특성을 이용해 지하 40~60m의 공기(연중 15~18도)를 끌어올려 버섯·양돈·감귤재배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끌어올린 공기는 여름철에는 2~5도를 내려주고, 겨울철에는 5~8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고유가의 파장은 농업 등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두루 미치고 있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대안 마련과 묘안 짜내기에 농가와 관계기관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song@kwangju.co.kr

삼성측 김변호사 주장 즉각 대응 차명계좌·분식결산 의혹 등 해명

삼성그룹은 5일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차명계좌 통한 비자금 관리=김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자신도 모르는 자금 50억원이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 삼성이 임원 1천여명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해당 차명계좌는 김 변호사가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재무팀에 근무할 당시 친하게 지냈던 동료인 김 변호사의 사전 양해를 얻어 개설해 사용한 것으로 김 변호사는 퇴직 이후에도 매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제공받아 자신이 대신 납부해 왔기 때문에 이 돈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미 안된다 고 반박했다.

◇계열사의 분식결산 주장=김 변

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이 이중장부를 이용한 수수금액 부풀리기와 건설공사 등의 분식회계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그룹내 모든 회사는 발생한 재무사항들을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한 감사를 받아 산출된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분식회계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법원 상대 로비=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현직 주요 검찰관부 40여명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한 번에 500만~1천만원씩 정기적으로 건넸으며, 삼성 구조조정 본부의 검찰 관리 비용이 연간 1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떡값이나 휴가비 등을 들린 적이 없으며, 김 변호사에게 그같은 일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선, 신경제 對 낡은 경제 대결”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사진) 원내대표는 5일 “12월 대선은 한반도에 평화 정착되느냐, 아니면 다시 냉전 대결시대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이자 새로운 경제와 낡은 경제의 대결이며, 5%의 특권층을 위한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95%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나라로 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몇년간 저회 평화민주세력은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켰고 책임을 통감하지만, 정치를 한나라당이 독점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대해 “97년 11월 외환위기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선박, 반도체, LCD 생산 세계 1위, 정보화 지수 3위, 자동차 생산 5위, 교육유류 12위, GDP 규모 13위 등 세계가 놀랄 정도로 우리 경제는 회복됐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이 피망

플러 살려낸 한국경제 10년의 역사를 ‘잃어버린 역사’로 폄하하며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 “평화가 곧 경제요, 우리 경제의 블루오션”이라며 “신당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해 병력감축 등 군비축소 방안을 협의하고, 예비군제도 전면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2차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경부운하의 목적을 물류라고 했다가 환경으로, 다시 관광으로 말을 바꿨다”며 “신당은 경부운하같은 생산성 낮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주공학 산업, 신에너지산업, IPTV와 와이브로, 기술융합산업 등 새로운 프런티어에 투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양수 前도공무원교육원장 장성군수 재선거 출마 선언



김양수 전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장(57·사진)이 5일 장성군수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장성군 장성읍 선거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활기찬 장성, 다시 웃는 통합의 장성을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다시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는 지역차원을 넘어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3만9천여 유권자와 함께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통해 장성의 명예를 회복하고 갈등과 분열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고향 장성을 화해와 통합의 장성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 후보는 황룡면 출신으로, 1976년 장성군 남면사무소를 시작으로 무안부군수와 전남도 비서실장, 행정혁신국장 등을 역임한 뒤 최근 명예 퇴직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동화약품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겉지고 뒹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이산화, 고추 tink,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 큐